

동아시아 문명론의 허와 실

이장희,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1.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 문명의 성격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세계관적 특성 또는 더 나아가 문명적 특성을 동아시아인 스스로가 뚜렷이 자각하고 있었다기보다 서구인들에 의해 발견되고,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인들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문명에 대한 규정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동아시아적 전통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할 때 기본적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그 대표적 예의 하나로 동아시아의 사상 일반을 거시적인 문명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일본정치사상사연구(日本政治思想史研究)』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저작에서 마사오는 중국사상을 헤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중국문명이 서구의 근대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성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을 한편으로는 정치를 도덕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작위의 구분 또는 단절이 없는 세계관을 거론한다. 주자학적 세계관의 전근대적 성격에 대한 강조를 배경으로 마사오는 일본 에도시대의 유학자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가 정치에서 도덕적 논의를 배제하고, 자연과 구분되는 성인(聖人)의 작위의 독자성을 주장함으로써 일본사상의 근대적 지평을 개척한 사상가임을 주장한다. 나는 이런 서구적 근대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 보는 동시에 마사오의 소라이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법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서양의 근대적 자기인식과 중국문명

유럽이 중국문명을 본격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한 시점은 마테오 리치 등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한 유학의 경전들이 소개되면서부터임은 잘 알려져 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유교전통이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이성의 사용을 통해 자연법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계시의 가르침은 결여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은 자연 철학을 진일보시켰다는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한 경탄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초월한 '계시(revelation)' 신앙의 요소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자연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마테오 리치를 이어받아 라이프니츠는 서구문명과 중국문명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실용적 기술에 있어서 중국인들과 비등하고 사변적인 과학에서 그들보다 앞섰다면, (이를 고백하기가 거의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실천 철학에 있어서는 중국인들이 우리를 분명히 앞서고 있다.” 중국 문명에서 계시적 요소의 결여는 자연 또는 물질과 분리된 추상화된 개념과 사유의 발전을 가로막았지만, 한편으로 자연적 이성 토대를 둔 실천적 합리성에 있어서만은 유럽보다 우월한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평가는 유럽 계몽주의자들 일반의 중국문명에 대한 경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처럼 천(天) 또는 자연과의 합일을 이상으로 하는 중국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얼마가지 않아 부정적 평가로 전환된다. 그 배경에는 역시 유럽 지식인들의 자기 문명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유럽문명의 발전을 과학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인위적(artificial)’ 문화의 발전으로 이해했다. 자연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디드로가 명명한 “인위적 인간(artificial man)”의 탄생이야말로 서구의 근대를 탄생시킨 기점이라는 것이다. 서구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인위적 문명이 자의성의 독재에 빠진 타락의 길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보다 높은 차원의 진보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이 일단 확립되면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기대는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인 역사적 반동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게 된다. 자연

으로부터 결코 분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중국문명은 이제 어떤 형태의 역사적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태적’ 문명으로 간주되게 될 예정이다.

중국문명의 자연적 이성에 대한 찬양에서 시작된 18세기 계몽주의자의 평가가 점점 더 자연에서 미분화된 정체된 문명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변해가는 정점에 헤겔이 자리하고 있다. 헤겔이 보기에 자연법과 실증법 사이에,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는 중국에서는 정신의 자기발전을 가능하게 할 계기가 없다. “정신이 아직 주관성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은 여전히 자연의 조건 안에 침잠된 정신의 모습을 띄고 있다. 외부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법과 도덕성이 아직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 여전히 미분화된 합일을 구성하고 있다 - 종교와 국가도 구분되지 않는다.”

3. 마루야마 마사오의 헤겔을 통한 동양이해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정치사상사연구』에서 중국유학 그 중에도 특히 주자학적 세계관의 성립사와 그 성격에 대한 탐색을 배경으로 일본사상사가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해체하여 결국 오규 소라이에 와서 완전히 탈피 내지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마사오는 헤겔의 역사철학이 중국문명과 일본사상사의 만남을 조감하는 작업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겔의 역사철학 서론을 책의 서두에 길게 직접 인용함으로써 숨김없이 드러낸다. 이 서론에서 헤겔은 여러 왕조의 생성과 몰락의 과정 속에도 중국역사는 본질적으로 “비역사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중국왕조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권위 아래 모든 사회조직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리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독자적인 것의 형성도 가능하지 않은 거대한 연속적 통일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마사오는 이러한 정치적 통일체의 이념을 밑받침하는 사상이, 군주와 신하 그리고 백성의 정치질서를 가족 관계의 인륜적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유학사상이라고 지적한다. 이 유학 사상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을 어떻게 일본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체 발전시켰는지가 이 저작의 중심적 과제인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의 유학이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것임을 배경으로 마사오는 주자학의 성격 분석에 집중하는데, 주자학이 애초의 유학의 지녔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유학을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형이상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이론체계로 전환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론체계의 “치밀한 정합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론에서부터, 형이상학, 인성론, 실천윤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연속적 체계의 수립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자연적 사실의 세계와 인간적 윤리의 세계가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주자학의 리는 사물의 이치임과 동시에 인간의 도리이며, 스스로 그러함[自然]임과 동시에 마땅히 그러해야 함[當然]이다. 여기서 자연법칙은 도덕규범에 이어져 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연속이 대등한 연속이 아니라 종속적인 그것이라는 점이다. 사물의 이치는 인간의 도리에, 자연법칙은 도덕규범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그 대등함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주자학의 이러한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가지는 우월적 위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낙관주의”를 내포한다. 성선의 이념은 선의 실현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보장하며, 기질의 청탁수박(淸濁粹駁)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성으로 말미암아 성인이나 보통사람의 구분 없이 모두가 덕행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사오는 이를 “덕행의 목표를 초월적인 이념으로 하지 않고서 이를 인간성에 완전히 내재시키는 한 틀림없는 일종의 낙관주의”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자학의 이러한 낙관주의는 군주 개인의 도덕이 전체사회의 정치적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주의이며, ‘사(私)’와 ‘공(公)’이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주자학의 인성론 중심의 도덕적 패러다임을 해체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긴요한 전략은 군주 개인의 도덕성으로부터 공공의 정치영역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주자학의 일본수용과 해체의 전개과정에서 오규 소라이에 이르게 되면 사적인 논의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추방시키고 “개인도덕을 정치적 결정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유구조가 확립됨을 주장한다. 소라이는 도덕과 정치의 분리, 공과 사의 분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아가 공적 정치의 영역을 사적 도덕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주자학적 도덕규범의 인성론 우위의 구조를 전복시켰다는 것이다. 소라이의 자연적 질서에 대한 논의와 성인(聖人)에 대한 논의가 마사오의 이런 평가

의 근거가 된다. 이제 마사오의 소라이에 대한 이런 평가의 정당성을 따져 보기로 하자.

4. 유학자로서의 오규 소라이

오규 소라이의 문제의식의 저변을 이루며 그의 기본적인 학문 방법론이 ‘고문사학(古文辭學)’임은 잘 알려져 있다. 소라이는 “중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것을 하나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학(譯學)이며, 고금을 합하여 이것을 하나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문사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의 공간적 차이를 없애는 방법이 역학”이라면 “고와 금의 시간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이 고문사학(古文辭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고문사학은 협의의 의미에서고 광의의 뜻에서 고문사학은 역학 곧 번역학까지를 포함하여 ‘육경(六經)’이라는 중국 고대 유학경전의 뜻을 소라이 시대에 정확히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 언어학적이고 경학적 연구방법과 목적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경에 새겨진 ‘고문물(古文物)’이 소라이에게는 유학의 근원이 담겨 있는 ‘도의 세계’이다. 육경을 중심에 둔 언어학적이고 경학적 태도는 당연히 도학적 측면에서 유학의 정신을 새롭게 형이상학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지극히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소라이가 주자학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이처럼 고문사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데 고문사학은 일종의 ‘원전근본주의’에 가까운 복고적 문예운동의 냄새를 풍기는 방법론이다. 한대의 훈고학이나 청대의 고증학과 마찬가지로 소라이의 고문사학적 학문방법론과 지향성도 유학사의 전개에서 등장하는 일종의 경전 복귀주의의 경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이에 대비되는 송명 이학(理學)이나 심학(心學)의 도학적(道學的)이고 형이상학적 경향성과 한 쌍을 이루며 장대한 유학사를 사실상 구성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마루야마 마사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규 소라이는 중세적 주자학을 해체하고 근대성을 선취한 사상을 전개한 사상가라기보다 유학의 전통에서 도학적 경향성에 맞서 육경의 근본정신을 되살리려는 경학적 지향성을 나름의 독특한 방법론과 해석학을 통해 추구하는 유학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5. 결론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정치사상사에서 오규 소라이를 중세적 주희철학을 해체시키고 근대적 정치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사상가로 평가한다. 이러한 마사오의 평가의 이면에는 역사전개를 헤겔적인 도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헤겔식 역사철학의 배경에는 계몽주의 이래로 중국이라는 타자를 매개로 한 서양의 근대적 자기 인식이 터하고 있다. 곧, 서양은 자신의 근대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 방편으로 자신들이 규정하는 근대성의 반대편에 중국문명의 성격을 위치지웠던 것인데, 동아시아의 연구자인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러한 서구 근대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국문명을 바라보고 일본사상사를 해석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사오의 작업에서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시각, 곧 서구적 근대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난다. 한국 역사학계가 ‘실학(實學)’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조선유학사에서 자생적 ‘근대’를 발견하고자 한다거나, 동양철학 연구에서 심성(心性)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적 주체성을 정초하고자 하는 시도 모두 계몽적이고 과학적인 실천성과 개별 시민의 자율적 도덕성의 성립을 시민사회의 근간으로 삼는 서구적 근대가 기준이다.

서구의 근대성을 잣대로 동아시아 전통사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경계는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서구적 근대에 대한 상대화를 통해 자국전통의 무조건적 긍정으로 이끌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거대한 자연 질서의 극히 미미한 일부임을 뼈저리게 자각할 것을 촉구하는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인위적 주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서양의 근대적 세계인식보다 고전적 중국 문명이 보여준 천인합일적 세계관이 훨씬 적실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깊이 새기며 동서양 문명의 전개과정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특정 문명 중심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